

【해외사료자원개발 현장을 가다】

코지드, 유통형 해외곡물자원개발 본격화...

지난해 5월 캄보디아 바탐방에 GPC 준공 "올 3월, 사료용 옥수수 첫 국내 반입"
올 3월 RPC, TPC 준공 통해 보다 다양한 곡물 유통할 것



▲ 캄보디아 바탐방 내, 코지드 곡물가공센터 전경 모습

최근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가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밀, 옥수수 등의 곡물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 했다. 기상 이변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자국 내 수급을 최우선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미의 라니냐, 호주의 흉수, 미국의 한파 등, 기상 이변으로 주요곡물 재배지역의 작황이 나빠졌고, 최근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은 식량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로부터 시작 되었다고 한다.

세계 최대 밀 소비국인 중국에서도 2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국제 곡물가는 연일 기록적인 인상폭을 보이고 식량 부족 문제와 그 파급 효과는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위기로 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대표 제분·사료 제조 기업인 동아원(주)이 투자 설립한 해외 자원 개발 전문기업 (주)코지드(Korea Overseas Grain Investment & Development)가 캄보디아에서 수급한 사료용 옥수수 50톤을 국내에 첫 시험반입하고, RPC(Rice Processing Center)와

TPC(Tapioca Processing Center)를 추가 준공하는 등 해외 곡물 자원 개발 사업을 본격화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로 부터의 다양한 공급 채널 확보를 통해 국제 곡물가 및 환율 등 외부적인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고 국내에 안정적으로 사료용 옥수수 등의 곡물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설립된 코지드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 내 옥수수 주산지인 바탐방에 10ha 규모의 곡물 가공 센터(이하 GPC)를 설립해 9월부터 정상 가동하는 등 현재 옥수수를 중심으로 유통형 곡물 자원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곡물자원 개발은 크게 농장형과 유통형 개발 모델로 나눌 수 있다. 농장형 개발 모델은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현지화에 대한 리스크를 그대로 떠 안아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며, 이에 반해 유통형 개발 모델은 최초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선점해 갈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향후 농장형으로 발전되지 못할 경우 원료 확보 등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는 부담을 있을 수 있다. 코지드는 선불리 해외 곡물 자원 개발에 뛰어 들지 않았다. 즉, 유통형 개발 모델을 통해 캄보디아 바탐방 현지의 농장으로부터 필요한 생옥수수를 수매하여 건조 판매하는 형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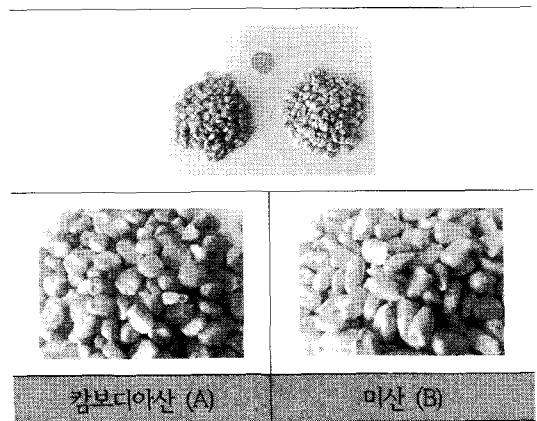
물론, 현지의 기후, 농업 산업 구조, 정치와 경제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철저히 준비하면서 필요한 요충지에 건조장치를 세우는 의사결정을 하였다.

코지드는 현지화 작업을 위해 현지 환경

에 맞는 육종 개발과 농기계를 빌려 주는 등의 영농 지원책을 개발해 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를 쌓아 가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코지드는 캄보디아 GPC에서 약7,500톤의 옥수수를 첫 가공에 성공하였으며, 올 3월에는 그 중 일부를 모회사인 동아원(주)의 사료BU 당진공장에서 사료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성공했다. 국내 첫 반입 신규 원산지 감안, 특히 우려되었던 아프리카톡신과 오크라톡신은 수입 승인 검정/검역에서도 이상 없이 최종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아원 관계자는 "미국산 사료용 옥수수 대비,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높아 영양소 구성에 용이하고 색소 성분이 높아 산란계 난황의 색을 더욱 더 선명하게 개선하는 효과를 준다"며 "이번 계기로 동남아 산 옥수수의 품질이 미국산에 비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시켜 동남아 곡물 자원의 국내 안정적 공급과 국내 사료 업계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맞추는 첫 물꼬를 튼 셈이다"고 전했다.



구분	일반성분 (%)		A - B
	캄보디아산(A)	미산 (B)	
수 분	13.37	14.43	-1.06
단백질	7.51	6.63	0.88
지방	3.74	3.34	0.40
육계에너지	3,219 Cal	3,209 Cal	10

또한, 코지드 관계자는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지만, 현재 관련 사업이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2만 톤 이상의 옥수수를 국내외에 유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바탐방에 이어 캄보디아 내 파일린과 칸달, 시아누크빌 등지에 곡물 건조장 시설 및 항구 곡물 전용 저장 시설(Port Elevator)를 증설해 오는 2013년부터 연간 15만톤의 사료용 옥수수를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 곡물시장에서 옥수수의 가격이 90%가량 치솟으면서 곡물 자원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이 같은 코지드의 활동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곡물 자급률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정부가 국가 곡물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콩과 옥수수, 밀 등을 국내에 반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민간이 먼저 시도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라, 코지드의 사업 방향과 진행 등이 다양한 형태로 국내 곡물 개발 사업에 성공 모델 및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코지드는 쌀 건조가공시설인 RPC를 비롯해 사료와 주정, 에탄올 용도로

사용되는 타피오카칩 공장인 TPC도 완공하여 이를 통해 향후 사료용 옥수수뿐만 아니라, 타피오카 등 기타 곡물에 이르기까지 해외자원개발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종합 곡물개발 회사로서의 역량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공급자 위주의 곡물 시장에 일정 부분이나마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급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관련 사업들을 시작하게 됐다며 사업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는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서도 코지드는 동아원 사료BU의 기술연구소와 외부 연구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국형 해외 자원 개발의 성공적인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다양한 공급 채널 확보를 통해 국제 곡물가 및 환율 등 외부적인 부침에 대비하여 자생적으로 곡물 자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코지드의 행보에 주목 해야 할 것이다. ☒